

사설

# #MeToo, 더 이상 숨지 않는 사회 되어야

1월 29일, 검찰 내부망에 서지현 검사의 글이 게시됐다.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게시된 글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을 비롯해 서 검사가 경험한 성폭력 사례들을 적나라하게 담았다. 다음날 언론보도를 통해 게시글의 전문이 밝혀지며 한국판 '미투 운동'이 시작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엔 #MeToo의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이 속속 게시됐으며, 연극계, 종교계, 대학 등 사회 전반에서 수많은 '미투'가 등장했다. 문학계의 거장으로 평가받던 고은 시인은 물론 조민기, 최일화 등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유명인들까지 성폭행·성추행으로 고발됐다.

미투 운동은 빠른 확산만큼이나 많은 생각을 동반했다. 뉴스 댓글엔 미투 운동을 두고 '올 것이 왔다'는 반응부터 '지난 과거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냐'는 반론까지 수많은 의견이 등장했다. 각종 매체에서 미투 운동에 대한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미투 운동의 핵심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십 년까지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감출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이 전면에 나섰다. 성폭행·성추행 등의

문제를 두고 가해자에게 유독 관대했던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물론 미투 운동을 통해 고발된 각각의 사안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선 익명으로 진행되는 폭로의 진위여부에 대한 우려도 표하고 있다. 성관련 범죄에 대한 인식이 무거워진 만큼, 면밀히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미투 운동이라는 큰 파도가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피해를 입었음에도 오히려 죄인이 된 듯 숨을 수밖에 없었던 과거와 달리, 피해자들이 용기를 냈다는 것은 변화가 시작됐음을 보여준다. 어렵사리 아픈 응어리를 들춰낸 피해자들의 진심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사회 전반의 지지가 신뢰가 필요하다.

88.6%,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대부터 50대까지의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미투 운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중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비율이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로 시작된 미투 운동, 이제는 피해자들이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나아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우리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석담추추

## '함께' 이면서 '혼자' 인 당신에게

인간의 심리변화와 사계절이 똑 닮았다는 이야기를 언젠가 들은 적이 있다. 따뜻한 정을 나누는 봄을 지나 함께 몸을 부대끼며 뜨거워지는 여름, 그러다 지친 마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찾는 고독한 가을과 그 외로움이 절정에 달해 추운 겨울, 그리고 다시 봄. 타인의 온기를 쫓아 '어울리고 싶은 누군가'를 끊임없이 찾다가도, 때론 관계에 지쳐 홀로서기를 자처하는 모습이 춘추동동의 변화와 비슷하다는 거다. 인간은 사회적 생물체라는 수천 년 전 격언도, 지금으로부터 행복하게 살자는 YOLO 열풍도 모두 우리네 모습이다. 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변덕스러운 존재인지!

그 지독하리만큼 쓸쓸해진 겨울의 끝자락에서 이번 개강호는 홀로서기를 자처하는, 또 강

요박는 군상들을 조명했다. 사회의 출발선과 종착점 양 끝에 고루 눈길을 돌려 청년, 그리고 노인의 고독을 살폈다. 그리고 묻는다. 당신은 함께가 아닌 혼자여도 괜찮은가. 혼자라면 손잡아 줄 누군가가 있는가. 누군가와 연결되어있는 순간조차 마음 한 구석의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는지.

아, 다만 새내기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읽어볼 개강호부터 '침울한' 소재를 폭폭 우겨넣은 것 같아 죄송스런 마음이다. 하지만 그리 걱정하진 마시라. 축제, 고연전, 동아리, 중광에서 막걸리, 신나는 응원까지... 그대들이 첫 발을 내딛은 이 고려대학교는, 적어도 당신이 혼자 외롭게 지내도록 가만히 내버려두진 않을테니.

장강빈 취재부장 shining@

석담만평

주재민 전문기자

3/9  
PARALYMPIC GAMES!!!



## 고대신문사 The Korea University Weekly

1947년 11월 3일 창간	취재부장	장강빈	FAX	02-928-0879
주간	매주 월요일 발행	사회부장	김민준	메일 press@kunews.ac.kr
		학술·문화부장	류승현	핸드폰 010-3363-1947
발행인	염재호	편집국	02-3290-1683	페이스북 /kunews1947
편집인 겸 주간	허태균		02-923-4408	엘로아이디 @고대신문
인쇄인	김교준	세종 편집국	044-860-1888	주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편집국장	이민준	총무국	02-3290-1682	홍보관 2층

# 평창 올림픽과 스포츠맨십

시론



이천희 고려대 교수 체육교육과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그 막을 내렸다. 88년 서울 하계올림픽이후 30년 만에 열린 동계올림픽에는 92개국, 292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최다 참가기록을 세웠다. 한국은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 등 역대 최다 메달로 종합순위 7위를 차지해, 아시아 국가 중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1위를 달성하였다.

금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하나 된 열정(Passion connected)'이라는 슬로건 속에 평화 올림픽이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안겼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은 올림픽의 패어플레이 정신과 스포츠의 진정한 의미를 강조하였다. 바흐 위원장은, "선수들이 최대의 명예를 얻기 위해 패어플레이라는 올림픽정신을 구현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진실하고, 가치 있는 올림픽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스포츠맨십의 핵심은 패어플레이 정신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스포츠는 본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성과 규칙성을 지켜가면서 재미와 유희성을 내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운동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정경쟁(Fair play)이다. 스포츠맨십은 스포츠에서 가장 기본적인 윤리인 것이다.

그러면 스포츠에서 패어플레이는 왜 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첫째로 상대를 배려하고 매너 있는 경기를 해야 재미 있고, 즐거운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매너 있는 경기를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교류하기 위해서다. 스포츠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경기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도 멋진 매너를 통하여 교류가 지속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스포츠는 메스컴을 통하여 전 세계에 전파되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단번에 소문이 무성하게 일어나고 있다. 좋은 매너가 넘치는 장면과 불쾌하고 폭력적 장면도 동시에 전 세계 지구촌에 바로 전달된다. 그를 통해 개인과 국가의 명예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금번 평창동계올림픽 중에 부정적인 장면이 노출된 바 있다. 어느 조직이나 단체들에게도 대립과 갈등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한국여자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출신에 따라 파벌을 조성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 것은 나쁜 유산의 산물이다. 선수관리와 선수간 화합에 실패하면서 대표팀의 팀워크에도 큰 타격을 받았다.

반면에 선수들의 공정경쟁(Fair play)장면들이 연출되기도 한다. 18일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스피드 스케이팅 500m 경기가 끝난 후 일본의 고다이 선수는 다음주자의 집중력을 흠뜨리지 않기 위하여 '숫'하는 동작을 취했다. 자신의 라이벌이지만 한국의 이상화 선수를 배려하는 멋진 매너였다. 경기에서는 경쟁자지만 일단 경기를 마친 후는 우정의 스포츠맨십이

필요한 것이다. 우승한 일본의 고다이 선수는 준우승한 이상화 선수를 위로해 주었고, 이상화 선수는 일본의 고다이 선수를 축하해 주었다.

또한 결승전을 4위로 통과한 쇼트트랙 김아람 선수가 활짝 웃는 얼굴로 금메달을 딴 최민정 선수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상대가 우승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이 일상에서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비록 경기에 져서 실망감과 박탈감이 있지만 우승자에게 달려가 축하해주는 아량과 너그러움이 스포츠맨십의 진정한 모습인 것이다.

스포츠맨십은 이같이 스포츠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다. 상대와 자신에 있어서 도덕적 태도, 진실성, 용기, 인내력, 자기존중, 상대의 의견과 권리에 대한 고려, 예의, 공정성, 관대함 등의 정신적 태도나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선수들에게 훈련시키고 알려줘 스포츠의 참다운 문화적 가치를 이해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이다.

진정한 스포츠맨십은 스포츠 현장을 넘어 사회에 나와서도 그러한 도덕과 윤리가 전이될 때 스포츠는 인류문화의 유산으로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 이제 평창올림픽은 성공적으로 폐막했다. 다음 시대를 위한 도덕적 정신을 의미하는 'The Next Wave(미래의 물결)'이라는 주제로 마감하였다. 이번 겨울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경기운영을 도와준 선수단과 자원봉사자 관람객들에게 찬사와 영광의 박수를 보낸다.

수레바퀴

## 나도 '꼰대'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실생활에서 흔히 꼰대라 불리는 사람들의 단골 멘트다. 어느새 꼰대는 노인과 선생님 등 기성세대를 뜻하는 은어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상대에게 강요하거나 훈계하려는 사람으로 의미가 바뀌었다.

사람이 한 사회에 소속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도 그 집단에 '꼰대가 있는 지'에 대한 것이 되고 만 사회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꼰대의 모호한 경계를 경험한다. 이 사람이 나한테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인지,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아 주기 위한 것인지 등은 당사자조차 모를 수 있다. 항상 '나도 꼰대일 수 있다'를 머릿속에 넣고 다녀야 하는 이유다.

2월 2일자 JTBC <뉴스현장>에서 김중혁 앵커는 이런 말을 했다. "꼰대가 꼰

대일 수 있다" 꼰대는 누가 나인을 짚는 것이 아닌 자신의 행동 때문에 얻게 되는 칭호다. 뉴스현장의 예시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또한 발언 하나하나에 담긴 낱은 생각들로 인해 기자들에게 꼰대소리를 들은 것이다.

인간은 꼰대가 될 수밖에 없다. 조직의 논리에 동화되는 것이 쉬운 특성상 무리도 아니다. 최근 '젊은(젊은 꼰대)'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꼰대는 나이 경계도 없어졌다. 과거 고연령 층과 저연령 층 사이의 문제가 이제는 군대, 대학, 직장 등에서 잘못된 군기 문화로 형성되었다. 선배라는 우월적 지위가 후배들에게 행사되는 것이다.

문제는 꼰대 문화가 증가하면서 제대로 된 조언도 꼰대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은 꼰대로 부르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 경험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정보다. 이런 정보를 듣지 않는 사회가 과연 괜찮은 사회일까?

영화 <인턴>에서 70세 인턴 벤 휘태커(로버트 드 니로)는 경험을 토대로 줄스 오스틴(앤 해서웨이)의 회사를 돕는다. 줄스는 30대에 직원 220명의 회사를 만든 능력자임에도 인생 경험은 무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꼰대 문화로 인해 이러한 사회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꼰대가 되지 않을 수 있나 묻는다면 '나도 꼰대일 수 있다.' 이 한마디만 머릿속에 넣고 살자. 자신이 꼰대임을 자각하는 사람은 절대 꼰대가 될 수 없다.

류승현 학술 문화부장 ryus@

종단횡단

## 지금 부는 바람에 불씨를 더 붙인다면

공공기관 채용 비리, 검찰 내 성폭력, 법조계 블랙리스트, 대중예술계 성폭력... 최근 몇 달 새 한국사회에 압박해 있던 염증들이 툭툭 터져 나오는 중이다. 여기저기서 나도 할 말 있다고 손을 든다. 실시간 검색어에 익숙한 이름이 뜨면 또 다른 고발일까 싶어 마음 졸인다. 청와대 청원 글에는 하루에 수십만 명이 서명한다. 대단한 고발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이제 목소리 내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촛불집회로 대통령 탄핵을 이뤄내면서 '개인이 만들어내는 영향력'을 인식하게 된 게 한몫했다. 사람들은 내 움직임이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직접 확인하며, 나 하나 소리 낸다고 달라질 건 없다는 냉소적인 생각을 바꿨다. 이전에도 용기를 가진 당사자들은 꾸준히 사회에

소리쳐왔지만, 지금처럼 사회 전반적 응원을 받아내기에는 힘이 부족했다. 2016년 #문단\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에 비해, 2018년의 #미투 운동은 국민적 관심과 용기 있는 동참을 이끌어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회가 바뀌었다지만, 권력 관계의 상층에 있던 사람에게 칼을 들이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피해자들이 실명을 공개하면서까지 고발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가해자 또는 사회가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상당한 정도의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서지현 검사가 3년 전 이 움직임에 불을 붙였다면, 연희단거리패의 피해자들은 입을 모아 이윤택을 지목할 수 있었을까. 대학생들은 교수 조민기의 추태를 폭로할 수 있었을까. 결국,

피해자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으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 부는 바람이 유행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좀 더 오래,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을 끌고 나가야 한다. 아직 손발 굵기 많다. 누군가는 과거를 돌아보며 떨고 있다.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평화로워 보였던 사회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 누군가는 불편하다 느낄지도 모르겠다. 혹자는 이상향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상향에 도달하려는 무모한 노력이 사회를 진보시켜 왔다는 것은 자명하다. 물 들어온 김에 노 젓자고, 이참에 그냥, '부당하다면 말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버리는 건 어떨는지.

박문정 기자 moonlight@